

이승만 서거 54주년 추모 세미나

건국혁명의 나라,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미안하다 청년들아

2019. 7. 18. (목) 14:0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축사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기조강연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회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발제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사장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여명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조우현 미디어펜 기자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주관:  여명 서울시의원

이승만 서거 54주년 추모 세미나-

“건국혁명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건국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남녀평등의 1인1표 투표권 부여, 삼권분립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와 같은 건국 혁명의 주 무대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우남 이승만 서거 54주년을 맞이하여 본 토론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가 서울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자랑스럽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명 의원실은 서울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만의 역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양 프로그램 개발로 녹여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행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축사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기조강연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회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발제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사장)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
	조우현 (미디어펜 기자)

(문의: myeo9117@gmail.com/02-2180-8275)

■ 일시: 2019. 7. 18. (목)

■ 장소: 서울시의회의원회관(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2층 제2대회의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러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은 義(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1875-1965)

<발 제 문>

우남, 그 붕(崩)의 마지막 한 달

- 가상의 일기로 본 -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사장)

6월 20일

각혈이다. 몸 안에서 돌아야 할 피가 밖으로 새어 나오니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은 듯 싶다. 어찌면 다행이다. 몸으로 갈 수 없게 막아놓았으니 혼으로나마 조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고약한 놈들이다. 군사 정변을 일으킨 자들이 이렇게 모질 줄은 몰랐다. 그 수괴가 자유당이라면 치를 떨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적개심이 이리 깊고 강고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안다. 절차적으로 올바르게 않게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정권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사실쯤은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 늙은이가 귀국한다고 해서 대체 무슨 위협이 된다고 그걸 죽기 살기로 횡방을 놓는다는 말인가.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6월 23일

혼몽 중에 짧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 얼굴이 고우신 걸 보니 내가 젊었을 때 같다. 어머니는 우셨다. 감옥에 갇힌 아들이 고초로 몸이나 상하지 않을까 쉼게 우셨다. 정말 그럴 뻔 했다. 아버지가 미리 손을 쓰지 않으셨더라면 내 육신은 곤장 100대를 다 채우기도 전에 작살이 났을 것이다. 물론 틈틈이 고문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 시절은 나쁘지 않았다. 미숙하나마 지혜와 결기를 담으려 노력했던 내 글이 제법 독자를 얻은 까닭에 음양으로 도움이 많았다. 궁에서도 은밀하게 내 신변을 챙겼다. 당연히 형리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 공부도 많이 시켰다. 마흔 명 양반 출신 관료와 지식인들이 내 덕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나 내내 답답했다. 사방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신세가 처량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때의 울혈은 여전히 가슴 속에 선명하다. 꿈에서 깨니 몸이 아프다. 두통도 심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아이고 아이고 몸이 아픈데다, 어머니. 아흔 살 아들이 마흔 살 어머니를 부르며 우는 중이다.

6월 25일

씹고 삼킬 여력이 없어 나 대신 고무호스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가끔 우유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먹는 것의 전부다. 바삭 마른 양팔에는 더 이상 주사바늘을 감당할만한 살이 남아있지 않다. 색깔도 검은 것이 팔뚝은 주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처럼 보인다. 제일 건강한 날이 항상 어제인 처지가 되었다. 달력을 보니 저절로 이맛살이 찌푸려진다. 전쟁만 없었어도 내 심신이 그렇게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 나라를 맡은 처지였다. 집중을 해도 부족할 판에 전쟁은 최악이었다. 통일을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다. 일찍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간파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소련, 중공, 북한의 전체주의 동맹이 그렇게 긴밀하고 은밀하게 굴러 갈 줄은 몰랐다. 동포여, 중국이라는 나라를 꼭 기억하라. 수백 년 조선을 틀어쥐고 숨을 못 쉬게 하더니 기어이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일에 기여를 한 국가이나라.

6월 27일

또 각혈이다. 몸이 흔들리고 어지럽다. 이제는 정말 사는 일과 죽는 일의 경계에 선 것 같다. 아니다. 나는 3년 전에 이미 죽었다.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불가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이미 나는 죽은 것이다. 분노와 좌절이 나를 죽였다. 내가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 나쁘다면, 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 속이 속이었겠는가. 몸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는데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진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무슨 판단을 잘 못 했기에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나이는 한참 어린 주제에 건강을 보면 나보다 더 늙은이 같은 이기붕이를 파트너로 삼아서 그런 것일까. 야님 주변에 죄다 아침꾼과 거짓말쟁이만 득실거리 그랬을까. 어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인수가 왔기에 묻기를, “나라가 어떠냐?” 했더니 “잘 돌아갑니다.” 하기에 주변에서 나불대는 그런 말들을 믿지 말거라, 주의를 줬는데 정작 나야말로 권력의 속성을 놓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 그보다 중하게 내가 간과한 것은 없었을까.

7월 1일

박정희는 지독한 인간이다.

7월 4일

하루 종일 몸이 편안하다. 통증이 소강상태인지 아니면 내 몸의 신경이 이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무뎠는지 알 수 없으나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오는 8월 15일에는 나도 조국에 돌아가 광복을 축하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 본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으니 지난 일들이 주마간산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해방의 기쁨과 나라를 세웠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흐뭇하다. 동란으로 무너져 내린 끝에 미국의 발목을 잡아 나라의 앞날을 편히 해 놓았던 것은 내 생각에도 잘한 일 중 우뚝이다. 나보고 칼을 물고 뛰라고 비난했던 자들이여, 이제 솔직하게 그대들의 비판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칭찬하노라. 잘 보았다. 무단으로 반공포로 석방하고 미국과 치킨 게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나라와 빈곤한 약소국을 동맹이라는 끈으로 묶을 수 있었겠는가. 다만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다 얻을 수 없고, 다 좋을 수 없는 게 세상일이라지만 이 안타까움은 참 오래, 길게도 간다.

7월 9일

깨어있는 것이 고통이다. 특히나 밤에 혼자 깨어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이라지만 이렇게 적막할 수가 없다. 하긴, 되돌아보면 내내 외로웠다. 주변에 죄 어리거나 어리석은 자들뿐이라 말을 나눌 상대가 없었다. 진정으로 식견과 통찰을 갖춘 자가 주변에 있어 어려움을 상의할 수 있었다면 이런 뒤죽박죽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막연한 소회가 아니라 채찍 같은 깨달음이었다. 아, 그거였구나. 간과하여 내가 놓치고 지나갔던 일들이 비로소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사람을 키우지 않은 것이다. 학교를 많이 세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력의 평균적인 향상 이상은 아니었다.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인간이 없었다. 민주주의를 선물했지만 핵심은 놓치고 그 중 나쁜 요소만을 섭취했다. 민주주의의 약점은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왜 망각했을까. 아테네가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의 연달은 등장으로 전성기를 구가한 것을 배워놓고도 왜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했을까. 혈육의 양자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양자들을 수십 명 키워 나라가 가는 길을 탄탄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명색이 정치학을,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빠뜨렸던 것이다. 깨달음이란 왜 이렇게 항상 지각으로 온다는 말인가. 그것이 오늘의 내 처지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어찌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봉쇄하는 요인이 된다면 이 막심한 후회를 어찌할꼬.

7월 12일

박정희, 그래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잘한 일이다. 내가 차마 하지 못했던 일, 그러나 누군가는 꼭 했어야 할 일이다. 그와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은 없으되 같은 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그를 기꺼이 용서한다. 그의 정치가 안민보국의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7월 18일

훈미와 훈미 사이 아내와 인수의 얼굴이 잠깐씩 보인다. 내출혈이 심해져도 또 응급실로 실려 갈 일은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 바람소리처럼 귓가를 지나간다. 이제 마지막이란 얘기겠다. 찬송가가 듣고 싶은데, 삼천리금수강산을 듣고 싶은데 무심한 혀는 도통 움직이지 않는다. 통증이 밀려온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다.

* 우남은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붕(崩)했다. 건국의 아버지를 치워버린 대한민국은 아비 없는 나라로 전락했고 가장(家長) 잃은 집안이 대부분 그러하듯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망해가는 나라의 청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

1. 들어가며

1948년 건국부터 2019년 현재까지 7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건국 과정의 혼란과 전쟁을 거쳐,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고, 마침내는 복지와 문화의 영역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성공의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미국과의 동맹이 칼날 위에 서 있고, 어렵게 국교를 정상화한 일본과의 협력도 50여년 만인 2019년 마침내 금이 갔다. 핵보유국 지위를 넘보는 북한 앞에 대한민국은 발가벗은 인질이 되어 조공을 못해 안달이다. UN 결의로 탄생한 나라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대내적으로는 좌우의 이념 갈등이 이제는 종북좌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남녀 갈등, 세대 갈등도 구조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놓고도 노인과 청년이 다투고 있고,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싸우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기득권화되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조합이 동료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인질삼아 기업을 옥죄는 괴물이 된지 오래다.

성공을 이끈 영역마다 존재해 온 엘리트 집단은 하나같이 모두 적폐로 몰리고 있다. 안보를 지켜온 군의 간성 육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역군 대기업, 교육을 이끌어

온 인적자본의 저수지 명문고와 명문대, 이들 모두가 적폐가 되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민단체의 탈을 쓴 386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따리를 틀고 국가의 중추기관을 모두 장악했다. 검찰, 법원, 언론부터 시작해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때 법과 괴변으로 범벅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 여론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나라이니, 김제동이 천문학적 고액 강사료를 받았다고 분개할 일도 아니다.

이런 나라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년을 앞둔 발표자와 같은 세대는 이제 물러날 세대이니 그렇다고 치자. 발표자가 청년일 땐 그나마 대한민국이 개천의 용처럼 비상하던 때다. 비상하는 국가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은 어떤 선택, 어떤 희망,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결혼마저 포기한 율로 (YOLO: you only live once) 족으로 인생은 한번 뿐이니 미래를 대비하기 보단 현재 즐길 수 있는 걸 즐겨라? 그나마 즐길 수 있는 청년이면 다행이다. 금수저, 은수저 못 묻고 태어난 청년은 그럼 어찌란 말인가?

2.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비상(飛翔)시킨 청년의 모습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빼 수 없다. 나머지는 이 두 분의 자장 안에서 기여했다. 오늘의 청년 특히 YOLO 를 할 수 없는 흙수저 청년에게 이 두 분의 삶이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분의 청년시절 모습을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의 삶에서 20살부터 40살까지를 청년의 시기로 보려 한다. '40살이 무슨 청년이나? 중년이지'라고 한다면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40살도 청년이라 주장하면 또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는 그냥 40살을 청년의 상한, 20살을 청년의 하한으로 삼기로 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1875년에 태어나 1965년에 돌아가셨다. 90세까지 장수한 분이다. 이 분이 20살인 해는 1895년이고 40살인 해는 1915년이다. 이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이승만의 삶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또한 부국 대통령 박정희는 1917년에 태어나 1979년에 돌아가셨다. 62세의 길지 않은 삶이다. 이 분이 20 살인 해는 1937년이고 40살인 해는 1957년이다. 이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박정희의 삶도 따라가 보기로

한다.

3. 청년 이승만 (1895-1915)

1895년 20세 청년이 되던 해 이승만은 몰락해 가는 조선의 틀 안에서 세상에 나가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신학문을 배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려운 도전을 선택했다.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 입학은 이승만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미래의 창이었다. 1897년 22세의 나이에 배재학당을 졸업할 때까지 이승만은 서재필과 같은 스승의 영향으로 서양학문에 눈을 떴고, 청년단체인 협성회를 만들어 서양식 토론을 통해 애국계몽 활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은 당시 독립협회가 주도하던 대중 집회인 만민공동회의 청년 연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등을 연이어 창간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대중을 계몽하는 활동도 활발히 했다. 조선의 틀을 뛰어넘기 위한 활동은 결국 이승만을 조선의 정치범으로 만들었다. 고종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승만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그러니까 24살부터 29살까지 감옥에 있었다. 5년 7개월의 감방생활 중 이승만은 『독립정신』 『청일전기』 등의 책 원고를 마무리했고, 영한사전 원고도 F까지 썼으며, 기독교로 개종도 했다.

감옥에서 나온 이승만은 아주 짧게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으로 일하기도 했으나, 석방을 도운 민영환의 요청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29살이던 1904년 11월 밀사의 자격으로 미국으로 갔다. 1905년 8월 30세의 나이에 이승만은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외교적인 답변으로 만족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이미 일본과 가쓰라·타프트 밀약을 성사시키고 있었다.

밀사활동이 실패로 끝난 것을 확인한 이승만은 계속 미국에 남아 유학하기로 결심한다.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즉 30살의 나이부터 32살의 나이까지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학부를 마친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의 석사과정을 거쳐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에서 1910년 35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의 틀을 뛰어 넘겠다는 결심을 한지 15년 만에 서양학문이 주는 최고의 자격에 다다른 성취였다. 이 박사학위를 배경으로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다.

박사학위를 마친 35세의 이승만은 귀국하여 YMCA 교사로 활동하다 105인 사건으로 알려진 일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중국 일본을 거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912

년 37세에 미니아폴리스에서 감리교 국제대회에 참석한 후 1913년 38세가 되던 해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정착했다. 같은 해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105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한 책 『한국교회핍박』을 출간하고 또 『태평양잡지』 발간도 시작했다.

한성감옥 동료였던 박용만과 거의 동시에 하와이에 정착한 두 사람은 동지로 시작해 경쟁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적이 되었다. 두 사람 갈등의 기본적 요인은 독립운동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였다. 이승만은 교육계몽을 그리고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주장해, 하와이 교민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후 1939년 64세의 나이에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가기까지 이승만은 하와이를 베이스로 청년기 및 장년기 활동을 지속했다. 이 기간 중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한인중앙학교, 한인여학원, 한인가독학원, 한인가독교회 등을 잇달아 세우며 교민들을 상대로 애국계몽 운동을 펼쳤다. 하와이에 체류하면서 1919년 43세의 나이에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상해로 넘어가 활동하기도 했다.

조선의 틀을 뛰어 넘으려던 청년 이승만은 그 대가로 감옥은 물론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미국 유학이라는 가시 밭 길을 선택했다. 어렵사리 성취한 박사학위를 배경으로 이승만은 미국의 지도층에 튼튼한 후원세력을 확보하여 후일 대한민국이 UN의 승인 하에 독립국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 청년기 이승만의 선견지명 덕택에 대한민국은 건국 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4. 청년 박정희 (1937-1957)

1937년 20세 청년이 된 박정희는 3월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4월부터 안정된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해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조선의 젊은이에게 일본의 군인이 되는 길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교사 생활을 하던 박정희는 어릴 적부터의 꿈인 군인의 길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1938년 21세 후반부터 1939년 22세 초반까지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는 서류를 두 번이나 보냈으나 모두 연령 초과를 이유로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낙방했다. 두 번째 지원 때는 혈서를 동봉하기도 했으나 그마저 소용이 없었다. 그 후 1939년 후반 세 번째 지원서를 보낸 박정희는 결국 시험에 응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정희는 같은 해 10월 목단강(牡丹江) 성(省)에 있는 만주군 6관구 사령부로 가 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에 합격한 박정희는 마침내 23세인 1940년 4월 신경(新京: 長春)에 있는 만주군관학교 2기로 입학해 꿈을 이루었다. 1942년 25세의 나이에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졸업생 240명 중 수석을 차지하여, 일본 육사 57기로 편입하며 군인의 길을 이어갔다. 1944년 일본 육사 57기 졸업생 300명 중 3등을 차지한 27살의 박정희는 열하성에 주둔하고 있는 만주군 8사단에 소위로 임관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할 때 28살의 만주군 중위 박정희는 사단장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946년 5월 29살의 박정희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대한민국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로 입학해 단기교육(9월 입학 및 12월 졸업)을 마치고 194명의 동기생 중 3등으로 졸업했다. 춘천에 있는 8연대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는 30살인 1947년 7월 국군 최초의 야외기동연습계획인 “대대진지공격 현지전술계획”을 작성해, 그 공로로 같은 해 9월 중위를 건너뛰고 대위로 특진했다.

31살인 1948년 8월 소령으로 진급한 박정희는 육군본부 정보작전국에서 근무하던 중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11월에 체포되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10년으로 감형되면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32살인 1949년 1월 강제예편되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1년 6개월의 문관 생활을 마치고 현역으로 복귀하는 계기는 1950년 박정희의 나이 33살에 김일성이 일으킨 6.25 남침전쟁 덕분에 마련되었다. 전쟁이 나자 박정희는 현역 소령으로 발령받아 육군본부 작전정보국으로 완벽하게 복귀했다. 전쟁은 박정희를 포함한 군인들의 경력을 빠르게 승진시켰다. 1953년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그 해 11월 박정희는 36살의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1957년 40살이 되던 해 박정희는 육군대학을 마치고 소장 진급에도 성공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던 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 식민지시대에 잘 나가는 교사 경력을 포기한 청년 박정희의 선택은 후에 그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물론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 박정희가 군인의 길을 가며 얻은 인맥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다. 이 엘리트 집단의 후원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좌익으로의 사상적 전향이 가져온 후폭풍으로부터 박정희를 살려냈다. 이어서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군인 박정희의 선택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이 전쟁에서 박정희는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확인시키며 미래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961년 5.16으로부터 18년 후 박정희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도달해 있었다.

5. 종합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의 청년기 경력을 정리하면 뚜렷한 공통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당대 최악의 흡수저 집안 출신이었다. 이승만은 왕가의 방계 후손이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집안으로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다음, 두 사람 모두 재능을 타고 났지만 스스로에게 주어진 재능을 기득권에 안주하고 편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길 이미 청년기에 거부했다. 이승만은 조선이라는 기득권 자체를 거부하며 청년기부터 자신의 재능을 근대국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맥을 쌓는데 투자했다. 박정희 역시 교사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청년기에 감행해 군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인맥을 쌓는데 투자했다. 물론 그 과정은 온통 주변의 걱정과 반대를 헤쳐 나가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셋째,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당대 최고의 전문성과 인맥을 얻은 결과는 이후의 삶에서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 이승만의 국제적 감각과 지식 그리고 인맥은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남침전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대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독보적 역할을 제공했다. 박정희의 군사적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인맥은 6.25 전쟁을 거치며 하나하나 검증되어 마침내 5.16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과업의 수행에 크나큰 역할을 제공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흡수저 청년에게 이 지도자들의 청년기 모습이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재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확신을 가지고 판단해 주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청년으로서 관심이 가는 일에 스스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치환된다. 이승만이 청년기에 미국이라는 이상적인 국가의 운영을 이해하고 따라하고 싶어 했듯이 혹은 박정희가 청년기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을 본받고 싶어 했듯이 그만큼의 관심과 정성이 모아져서 그 대상이 스스로의 간절한 미래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 만큼의 간절함이 없다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모두에게 편안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미래를 걸만한 영역이 훨씬 넓고 깊어졌다. 또한 인터넷 세상이 그러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음악의 BTS, 축구의 손

흥민, 유튜브 방송의 신혜식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청년 패널들도 마찬가지다. 청년 한국학자 이화여대 박사과정 김다인, 청년 언론인 미디어펜 기자 조우현, 청년 정치인 서울시 의원 여명,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당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두터운 인적 자원을 쌓아가며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지 않다.

사회 각 영역의 기득권에 침투해 이제는 끈대가 되어 버린 386 주사파 운동권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상을 바로 잡을 방법은 바로 이들 젊은이들의 선택과 집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조선의 낡은 시스템을 뒤엎은 이승만의 신문명, 교사라는 안락한 길을 뛰어 넘은 박정희의 군에 대한 전문성이 결국에는 기존의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꾸었다. 청년들에게 짐을 지우는 필자가 부끄럽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을 위한 병풍이라도 되어야 한다.

6. 보론: 박정희는 친일파?

일부에서는 1940년 만 23의 나이에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는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상식적 해석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1975년 29살의 나이에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그리고 1980년 6월 27살의 나이에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 역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도 ‘독재의 앞잡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박정희는 안 되고 노무현·문재인은 될 이유는 없다.

박정희 혈서 기사, 만주신문 1939 3 31



박정희가 1939년 만 22세의 나이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썼다는 혈서 문제

도 마찬가지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보도는 제목을 “혈서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라고 달고 있다. “29일 치안부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교사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증명서와 함께 ‘목숨 바쳐 봉공 박정희 (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라는 혈서를 쓴 종이를 동봉하여 등기로 도착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로 시작한 기사는, “달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 위해 군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군관학교의 입학 연령 자격은 16세 이상 19세 이하로 되어 있어,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군(同君)에게는 유감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기로 함”이라고 마무리되고 있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일사봉공’(一死奉公)이라는 혈서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 때문에 지원이 거절되었다는 보도다. 혈서가 입학에 미친 영향이 아리송해지는 대목이다. 혈서를 동봉해 지원한 그 해 박정희는 군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2009년 새로이 발굴된 이 기사와 박정희의 문경학교 동료 교사였던 유증선의 증언을 기초로 조갑제가 2007년 출판한 『박정희, 제1권 ‘군인의 길’』 (조갑제닷컴) 에 나오는 ‘혈서’(190-194 쪽) 및 ‘만주행’(194-198 쪽)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즉 두 문헌은 실제에 접근하는 각도는 달라도 내용은 같다.

박정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혈서 기사를 근거로 박정희를 친일파로 단정한다. 그렇다면 유신시절 대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잡혀가 ‘전향서’를 쓴 것도 ‘유신의 앞잡이’가 되는 근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나이라는 조건이 장벽이 되자 박정희는 혈서라도 쓰면서 군인이 되고자 했다. 살기 위해 전향서를 쓴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혈서로 쓴 내용 자체는 당시 모든 한국인들이 아침마다 외워야 했다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와 하등 다를 것도 없는 판에 박힌 내용이다.

그러나 후자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는 일은 ‘강요에 의한 친일’이고, 혈서는 ‘자발적인 친일’이지 않냐?”고 토를 달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노무현과 문재인도 강요에 의해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 시대에 사법시험에 응했는가? 그것도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주어진 조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선택일 뿐이었다. 그런데 왜 박정희는 안 되고 노무현·문재인은 되는가? 『문재인의 운명』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나는 ‘헌법과목’에서 거의 최고 득점을 했다. 그것으로 나머지 과목의 낮은 점수를 만회해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다.” 유신헌법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는 이야기 아닌가? 박정희 혈서와 무엇이 다른가?

바깥일에만 신경 쓴 아버지

-집안일만으로 벅찼던 아버지 윤치호 일기를 통해

김다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과정)

국내에서 이승만의 활동을 한 번 짚어보자. 1897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은 1898년 불꽃같은 한해를 보낸다. 1월 1일 <협성회회보>를 창간하고 주필로서 논설 집필(순한글 주간)했고, 3월 10일 독립협회는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러시아 세력 배척을 결의하였는데, 이때 가장 인기있는 열변가로 민중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이승만을 총대로 뽑아 외부대신에게 보내 항의하게 하였다. 그 후 4월 한국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하고 주필이 되었고 5월엔 사장에 취임한다. 하지만 7월에 내부 분규로 <매일신문>과 <협성회>에서 해임, 탈퇴하였다. 8월에 다시 <제국신문> 창간하고 주필에 취임한다. ①11월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한다는 수구파의 무고로 독립협회회원 17인이 수감되자 ②배재학당 학생 등 민중을 이끌고 농성을 했다. 11월에는 이승만이 이끄는 만민공동회를 수구파들의 조종을 받은 보부상 200여 명이 습격하는 (그 유명한) 유혈충돌이 있었다. 고종이 독립협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하여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12월 수구파의 거두로 지목된 심상훈, 민영기 등이 입각하자 만민공동회를 재개한다.(보름정도 계속됨) 고종은 결국 수구파 대신들의 말을 들어(왔다갔다함) 이승만이 이끌던 만민공동회를 탄압, 해체 시킨다.

③12월에 만민공동회가 재개될 때 이승만은 중추원 회의에서 박영호, 서재필을 정부 대신으로 천거(12.6)한다. ④1899년 1월 수구파 심상훈 등은 독립협회와 회원 이승만, 윤치호, 남궁억 등 20명을 배척하는 소를 올린다. ⑤결국 이승만은 박영호 등의 황제 폐위 음모에 가담한 죄목(독립협회사건)을 쓰고 투옥된다. 투옥후 ⑥탈옥 시도했으나 실패한 이승만은 곤장백대 및 종신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그리고 ⑦1904년 특사로 출옥될 때까지 옥중에서 공부, 저작 및 번역활동, 선교 등의 시간을 보낸다.

◆ 함께 조선에 있던 시절

① 1898.11.5
독립협회 주요인사 17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제국신문 편집장인 이승만과 배재학당 보조교사인 양홍묵이 찾아왔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두 사람은 나가서 다른 이들의 지원을 받아 경무서 앞에서 군중을 소집했다. 군중들은 자신도 체포되어 독립협회 회원들과 함께 처벌받겠다고 주장했다.

오늘 자 관보에는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헌의육조를 승인한 대신들을 해임한다는 소위 칙령이라는 것이 실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이다! 아무리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는 비겁자라도 대한제국의 대항제보다 더 야비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친일파의 노예인 유기환과 친러파 악당인 조병식 손아귀에 놓여 있다. 즉 러시아인과 일본인이 탐나는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한창 자신들 노예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망할 일본인들! 일본인들은 곧 조선의 마지막 희망, 즉 독립협회를 깨부수기 위해 러시아인을 지원할 이유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밤에 리드 박사 댁으로 옮겼다.

㉔ 1898.11.11

현재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두 청년, 양홍묵과 이승만에게 반 독립협회 주간 동안에 체결된 비밀 계약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그 내용을 서울의 모든 외국 공사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㉕ 1898.12.27

최근 만민공동회의 실상과 생각

1. 성급한 동료 몇 명이 이달 6일에 대중집회를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성급한 조치에는 반대했다. 대중이 분개하거나 공감할 대의명분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없이 대중 집회를 시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급진파는 일단 대중집회를 출범시키면 대중의 공감과 자금도 다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진파들은 투석꾼과 함께 보부상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이 일만은 중단시켰다. 급진파가 이런 짓을 못하게 저지하긴 했지만 평범한 집회 개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약하게도 그 제안을 지지했고, 그 대중집회에 이끌려갔다.

2. 거의 20일 동안 집회에서 7,000~1만 명의 투석꾼 식비로 매일 200~300엔 씩 돈을 지출하였다. 앞으로 남은 돈이 없기때문에 집회 지도층은 서울의 부자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는 어리석지만 필요한 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집회는 서울의 영향력 있는 집단에게 역겨운 대상이 되고 말았다.

3. 12월 12일 경 박영효에게 헌신적이어야 할 쓰네야(Tsuneya, 恒屋)를 만났다. 츠네야는 박영효를 불러들이자고 집회에서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당(People's Party)은 정부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집회에서 박영효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하면 즉시 궁과 무지한 대중의 공격에 노출될 것입니다. 몇 사람이 사적으로 상소문에 박영효에 관해서 언급하게 합시다. 지금 그런 취지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난 12개월 동안 박영효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 단호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4. 16일에 최정덕(崔正德), 이승만(李承晩) 등 급진파 한두 명이 명백히 이견호(李健鎬) 등의 자문을 받아 중추원에서 박영효의 소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그 어리석은 행동을 지지하도록 만민공동회를 설득하였다.

5. 국민당(People's Party)이 박영효의 소환을 제안한 중추원의 행동을 지지하자마자 대

중의 정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등을 돌렸다. 왕실은 이 기회를 움켜쥐었고, 모험을 무릅쓰고 무력을 사용하여 집회를 해산시켰다. 이달 22일과 23일에 만취한 병사들이 집회의 주요 연사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국민들은 황제에 대한 최대의 반역자인 박영효를 무리하게 데려오려 한다는 이유로 대중지도자들을 반역자라고 “욕했다.”

6. 대중의 우호적인 여론 때문에 존재했던 만민공동회는 대중의 공감을 상실하여 결국 실패했다.

7. 지난 며칠 동안 급진파는 또 다시 만민공동회를 시작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나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런 소요에 반대한다.

(1) 우리에게서 자금이 없다. 마지막 집회 이후 우리는 3,200달러 이상 빚을 지게 되었다. 한때 집회가 시작되면 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한때”가 너무 빈번했다.

(2) 우리는 박영효를 소환하자는 경솔한 제안을 해서 국민의 공감을 잃었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 대신 국민들이 분노할 대상이 전혀 없다.

(3) 지금 국고가 고갈되었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병사들에게 지급할 돈이 전혀 없다. 만약 지금 우리가 대중 소요를 일으킨다면 궁에서는 세금 체납, 국고 고갈 등의 문제가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사들은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4) 우리가 지금 대중 시위의 형태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측은 일본인과 러시아인뿐이다.

(5) 만약 우리가 궁궐로 쳐들어가서 지금 전하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악당들을 일소(一掃)할 수 없다면, 단순한 거리 집회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당분간 개혁을 하거나 기형적으로 바뀔 기회를 주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과열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당분간 은신하고 있는 편이 이치에 맞다.

8. 일본 공사 가토 씨가 주선하여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회장인 고용근¹⁾과 내가 일본 공사관에서 민영기와 면담하게 되었다. 가토 씨는 조선과 일본의 안녕을 위해 세심히 배려하는 친구로서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충고하였다. 가토 씨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에서 소요사태가 지속되면 아시아의 평화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민영기는 국가의 평안을 위해 대중지도자들과 기꺼이 화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용근은 자신과 자신의 단체에게 반역죄를 부과하고, 상소문에서 반역자라는 이유로 고용근이라는 이름에서 성인 ‘고’를 빼는 모욕을 가한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근과 민영기 사이에 불편한 장면이 연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민영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제라도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대등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를 다시 거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진정시키는 최선의 방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보부상을 축출하고, 법부와 경무서 관직에 국민들이 신뢰하는 인물을 임명하도록 전하를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두려움과 의혹에서 벗어날 것이고, 곧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민영기는 내 말에 동의했고, 이런 화해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가 끝나자 가토 씨가 우리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회의 도중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고용근은 민영기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을 학살하려는 저 자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시오?” 민영기 뒤에서 한 말이지만 상당히

잘 들렸다. 민영기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인 통역관 고쿠부 씨가 설득하여 결국 고영근은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다. 우리는 12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영근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개인의 작은 상처에는 분개하지만 대사(大事)에는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조선인처럼 행동했다. 만민회(萬民會)의 회장직이 고영근을 망쳐버린 것 같다.

④1899.1.5
 “급진파”가 내일 대중집회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영근을 찾아가서 왜 지금 대중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되는지 설명했다. 일본공사인 가토 씨 또한 대중집회에 반대하고 있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거의 3,200달러나 되는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식품노점상들의 외침이다. 마지막 집회 때는 거의 6,000달러나 지불했다! 돈 문제에 관한 한 절대 조선인들을 믿을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 몫만 챙기려고 한다. 17일 동안 6,000달러를 쓰다니! 최악의 상황은 그 부채 중 상당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④1899.1.9
 오늘 오후 3시쯤, 이승만이 일본인 거류지에서 체포되어 경무서로 이전되었다. 사람들은 윤세영의 자백에서 이승만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믿고 있다. 정항모는 셔먼(Sherman) 박사 병원 앞에서 체포될 뻔 했다. 다행히 정항모는 달아났다. **이승만은 정항모를 본 뒤에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무모함 외에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17명의 독립협회 인사들이 수감되었을 때처럼 경무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들은 당시 독립협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은 박영효 사건 때문에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로 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2. **당시에는 날씨가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몹시 춥다.**
 3. 당시 사람들은 시위를 후원하기 위해서 돈 등을 기부했다. 지금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3,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만나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빚을 갚으라고 큰소리 칠 것이다.
 4. 당시 체포된 17명에 대한 고발은 속성상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 지금 고발은 개별적이다. 이승만과 몇몇 사람들이 이규완과 황철과 함께 전하를 퇴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었다는 것이다. 당시 독립협회 회원들은 집회에 참석한 회원 다수의 전적인 동의 없이 수감자들이 독립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승만의 사적인 행동과 생각을 책임질 수 있는가?
 5. 당시에는 집회를 개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실하고 정력적인 회원들이 몇 명 있었다.

1) 그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민영익(閔泳翊)의 시중꾼으로 궁중에 드나들다가 고종과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 1891년 함경도 매광감리(煤鑛監理), 1893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 1898년 중추원의관(中樞院의官)에 임명되는 등 고속승진을 거듭하였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되자 이를 재건하기 위해 과격한 계획을 주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일본으로 피신, 그곳에서 명성황후 살해의 주동자 우범선을 제거하였다. 이 일로 일본 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조선 정부의 교섭으로 1909년 국내로 송환되고 죄도 면하게 되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여 홍릉(洪陵)에 묻히자, 1921년 3월 능참봉(능을 지키는 하급 관리)이 되어 무덤을 지켰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영근 [高永根] (두산백과)

당시에는 심지어 군중을 완전히 해산시키는 일도 몹시 힘들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형사들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집회를 유지하기는커녕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물도 없다.

6.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정부는 경악했고, 반면에 국민은 역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지금 정부는 완전히 무장한 채 대중집회를 철저히 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반면 국민은 겁에 질려 심약한 상태에 처했다.

㉞1899.1.30

만민공동회의 채권자들은 16일에 돈을 받지 못했다. 만약 투옥된 사람들이 지금 모두 풀려난다면 천 달러 정도 모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만민공동회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오후 3시 경 최정식(崔廷植), 서상대(徐相大), 이승만(李承晩)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최정식과 서상대는 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에 들어가서 탈출에 성공했지만, 겁에 질린 이승만은 마침 서대문 거리를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잡혔다. 이승만은 상당히 생각이 짧다. 그는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㉟ 1904.8.9

4시에 거의 6년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어제 석방된 이승만(李承晩)을 방문했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영어실력이 일취월장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영어로 상당히 훌륭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은 학교를 열어 많은 수감자들을 지도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의심할 바 없이 이상재 이원금(李源兢) 홍재규 김중식 등이 개종한 것은 거의 이승만 덕분이다.

1904.10.11

7시 30분에 전기회사 뒤에 자리 잡은 임시 YMCA 건물에서 최초의 YMCA 회의가 개최되었다. 게일 씨가 회의를 주재했다. 조선인 가운데는 이상재 이승만 여병헌(呂炳憲)이 연설했고, 나도 연설했다.

◆ **이승만이 떠난 후**

1917.4.11

YMCA에 출근했다. 야마가타 이소오 씨를 방문해 이승만(李承晩)의 편지를 전달했다.

1917.5.13

종교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드렸다. 홍병선(洪秉璇)²⁾은 이승만이 투옥 중에 자신과 자신의 연로한 부친에게 헌신을 다했던 부인과 이혼한 것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승만 박사는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고, 부인과 떨어져 지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홍병선이 지나치게 신랄하다고 생각했다.

1918.5.7

YMCA에 출근했다. 하와이에서 막 귀국한 오(吳)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와이에는 파벌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李承晩) 파벌이고, 다른 하나는 박용만(朴容萬) 파벌이다. 박용만은 명백한 공금 횡령으로 체포되었다. 조선인들은 박용만이 굉장히 파렴치하고, 이승만이 사심 없이 헌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수집된 기금은 대표자들에게 보내졌다. 약소 민족대회가 뉴욕에서 열렸다.

◆ 그 해, 1919년.

1919.2.11
오전 11시부터 YMCA에서 근무했다. (...) 저녁식사를 한 뒤 간자키 씨를 방문했다. 간자키 씨 말에 따르면 며칠 전 민(閔) 모라는 사람 집에서 화약이 폭발해 가옥 일부가 손상되고 민 모라는 사람은 사망했다고 한다. 오늘 저녁 육완수가 이승만이 미국 어딘가에서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1919.4.13
오전 내내 집에 있었다. 변훈이 이승만이 하와이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편지 사본을 보여주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선인들이 이승만을 열렬히 환영했다. 2. 안창호가 이승만에게 재미 조선인들이 낸 기부금은 1만 달러에 달하는데 하와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낸 기부금은 시시하게 1,000달러뿐이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불평하면서 안창호 자신이 직접 하와이에 가서 기부금을 더 많이 모금한다고 했다. 3. 캘리포니아의 조선인들이 파리강화회의에 정(鄭)씨 ³⁾ 라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지만, 미국 동부의 조선인들이 반대했다. 4. 미국 관리들이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파리에 가려고 하는 조선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한 이승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5. 서재필 씨는 조선의 진상을 알리려고 파리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6. 서재필 씨는 조선을 홍보할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모금하자고 제안했다. 이 편지는 진짜인 것 같다. 치창과 함께 산책 삼아 창의문 밖 정자에 갔다.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몹시 피곤했다.

->이 편지는 명백하게 진짜인 것 같다. 1919년 <이승만 일기>를 잠시 살펴보자.

1월 13일

항해 8일째. 오전 7시 30분에 기상. 파리예비강화회의(Preliminary Peace Conference)⁴⁾는 연합된 하나의 중국을 선호. 종일 글을 씀.

1월 14일

항해 9일째. 오전 7시 30분에 기상. 무선 아침 뉴스. 제 1차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중국을 대표하지 않기로 결정. 우리 파견 대표단의 수를 결정하려고 중지를 모음.

2) 흥병선(1888~1967)은 서울지역 기독교계의 중진으로 감리교와 YMCA에서 활동했다. YMCA 농촌사업의 최고 이론가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고, 1930년 조선감리회 총리원 이사로 선임되었다. 흥업구락부사건 이후 친일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3) 정한경(鄭翰景, 1891~?)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9년 2월 이승만과 함께 월슨 미국대통령에게 조선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4)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 1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 최종 회의는 1920년 1월 20일까지 지속되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18년 11월 25일에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3인을 파리강화회의와 뉴욕의 소약속국동맹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에 파견키로 결정했으나 이들은 미국의 여권 발급 거부로 파리에 가지 못하였다

1월 22일

안창호에게 1,119불 50센트를 지불. 뉴욕에서 개최되는 약소국과 주권국 회의⁵⁾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모금한 2,000불의 일부. 박용만(朴容萬) 파견.

2월 5일

남한 부호의 자제 장택상이 최근 런던에서 뉴욕으로 왔다. 민규식(閔奎植)⁶⁾ 역시 참정대신을 지낸 한국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민영휘(閔泳徽)⁷⁾의 자제로 같은 무렵에 뉴욕에 도착했다.

서재필 박사는 이 두 젊은이를 붙잡고 50만 불의 자본금으로 영어잡지를 출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장택상과 민규식에게 각각 20만 불씩 출자하라고 하고, 이 박사가 하와이에서 10만 불을 모금하면, 자기 소유의 인쇄기와 기타 시설 전부를 내놓겠다고 하였다. 두 젊은이는 정한경이 부편집인을 맡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의 지도하에 즉시 사업을 시작하자고 입을 모았다.

나는 하와이 한인들이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하라고 나를 파견하였으니 다른 일을 맡기 전에 우선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파리에 가는 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무모한 일'이나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며 그만두라고 나를 말렸다. 나는 일단 그 일을 맡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월 10일

월요일.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안창호가 보낸 전보를 서재필이 가지고 옴. 이상재, 길선주(吉善宙)와 손병희(孫秉熙)가 파리로 파견됨. 그들을 도우러 나도 파리로 갈 계획. 상해의 현순(玄榘)도 합류할 예정(파일 참조).

4월 10일

안창호가 호놀룰루를 경유하여 상해 출발. 그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캘리포니아를 떠남.

5) 정식명칭은 소약속국동맹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제1차 회의는 1917년 10월 29~31일, 제2차회의는 1918년 12월 14~15일, 뉴욕의 맥알핀호텔에서 열린 약소국의 국제회의이다. 세계의 소약국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여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회의에 제출할 의안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 및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 대표 등 24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1917년 10월 제1차 회의 때 한국대표 박용만은 회의장에 두 번째로 출석하고, 김현식은 인도,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의 대표들과 함께 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차 회의 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3인을 한인 대표자로 파견하였다.

6) 생몰은 1888-?. 민영휘의 셋째 아들. 일본 게이오 대학 이재과(理財科),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원을 중퇴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한일은행 상무이사, 동민회 평의원, 동일은행 대표이사, 조선실업구락부 이사를 역임하였고, 일제 말기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국민총력조선국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준비위원,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며 일제에 다액의 금품과 물품을 헌납하였다. 해방 후 한민당 창당 발기인, 민족대표외교사절후원회 재정부원, UN조선단환영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50년 7월에 납북되었다.

7) 생몰은 1852-1935년. 초명은 영준(泳駿)으로 1877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평양감사·협판내무부사를 거쳐 1891년 경리사를 맡으면서 세도권을 장악하고, 1893년 내무부독판·선혜청당상 겸직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자 청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갑오경장 후 민씨 척족과 함께 귀양형에 처해지자 청국으로 도피하였다. 이듬해 귀국하여 중추원의장·시종원경·헌병대사령관 역임하였으며, 휘문학교를 설립하여 계몽운동을 벌였고, 1910년 경술국치 후 일제에 의해 자작이 되고 거액을 투자하여 천일은행을 설립하였다.

◆ 밖에서 팔자 좋은 소리?

1919.4.26
<p>무라카미 씨가 나를 파고다식당으로 초대해 점심을 “스키야키”로 먹었다. 야마가타 이소오 씨 마쓰모토(松本雉太郎) 씨 와다세 목사도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그들은 총독부의 완고한 군국주의를 자유롭게 비판했다.</p> <p>와다세 목사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각료 이름이 실린 명단 사본을 보여주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다. 임시정부는 조선인들에게 총독부에 세금을 내지 말고, 분쟁을 해결하러 일본인 법정에 가지 말라는 훈령을 발표했다. 현순 목사 같은 사람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몽상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순 목사는 정치선동가로서보다는 복음 전도사로서 조선인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안타깝다.</p>
1919.10.30
<p>YMCA에 출근했다.</p> <p>내일 일장기를 달 것인가, 달지 않을 것인가가 지난 며칠 동안 가장 화급한 사안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민영환처럼 자살을 하거나 이승만처럼 조선을 떠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좋든 싫든 우리가 일본 법령의 보호 하에서 사는 한, 다시 말해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그 법령을 수용해야 하는 한, 그 법령의 요구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조선인에게 일장기는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일본의 법령 하에서 살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도발이 일어나도 일본 법령에 호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장기를 게양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일장기 게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변훈이 말하기를 오늘 어떤 소녀가 민원식(閔元植)⁸⁾의 목숨을 노렸다고 한다.</p>

◆ 결국 돈

1921.1.5
<p>오후에 눈이 내렸다. 오후 3시쯤 YMCA에서 젠킨스(Jenkins) 양을 만났다. 젠킨스 양은 이승만 박사의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이승만 박사는 돈을 원하고 있다.</p>
1921.1.6
<p>오전 9시에 젠킨스 양을 방문했다. 이승만 박사에게 나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 압박에 처해 있는 이상, 없는 돈을 보내줄 수는 없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인사와 연락을 취하면 당국에 체포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어리석은 폭력 난동을 포기해야 한다. 폭력 난동을 시도해봐야 조선인만 다칠 뿐이다. <p>임시정부를 운영해나가려면 1년에 적어도 4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통치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정부를 유지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많은 똑똑한 청년들에게 건설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쓰면 어떨까?</p>
1924.1.3
<p>오늘 아침에 이상재 선생을 방문해 중역회를 소집하라고 박승봉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p>

8) 민원식(1886~1921)은 1908년 친일파 이지용과 함께 친일단체인 대한실업협회를 조직해 반민족적인 행위에 앞장섰다. 1920년 일제의 소위 문화정치로 민간신문 발행이 허용되자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는 국민협회를 조직했고, 같은 해 4월 1일 『시사신문』을 발행해 사장에 취임했다.

다. 이상재 선생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중대한 시기에 내가 미국에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노신사는 미국이 일본과 싸울 태세에 처하지 않는 이상 조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미국이 조선독립을 위해 피를 흘릴 만큼 조선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뭔가 도움이 되려면, 내가 여러 파벌의 찬사와 복종과 단결을 강요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거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정치선전에 자본을 댈 만큼 엄청난 부자여야 한다.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가면, 제2의 이승만이나 김가진이 될 것이다.** 내가 미국에 가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조선에서도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오후 1시 30분 기차로 서울을 떠나 송도로 향했다.

◆ **당시 최고의 국내 지식인들도...**

1932.7.15
 서울 집.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폭우가 쏟아졌다. 안창호씨는 오후에 수감⁹⁾되었다. 오후 4시 30분 이광수씨의 부탁을 받고 안씨와의 짧은 면담을 가졌다. 그런데 김활란양은 내가 당국자들에게 안씨를 석방해줄 것을 빈번히 요청했다는 소문에 분개하였던 것 같다. 이승만 박사와 그의 지지자들 그리고 서북계를 이끄는 안씨 사이에 불쌍사나운 싸움이 서울에 까지 도달한 것 같다. 신흥우, 유억겸, 김활란 등은 내가 이광수, 누구보다도 안창호와 같은 서북계 지도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 우정과 정치적 당파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1935.3.24
 서울 집. 오후에 중앙호텔로 가서 안창호를 방문했다. 처음으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에게 극렬하게 기호파와 대립하고 분파를 조장했는지 따져서 물었다. 만약 그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안창호를 버린 사람은 바로 이승만 박사였으며 안창호가 이승만 박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안창호는 매우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는 조선 사람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서북(西北)파 안창호, 이광수	기호(畿湖)파 이승만, 김활란
---------------------	---------------------

1931.4.18
 안창호가 이끄는 서북파가 기호파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중국 등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두 파벌은 도저히 용해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 서북파는 기본방침으로 일본인을 몰아내기 전에 기호파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 기호인은 한결 같이 두 진영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서북파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선인이 폭풍우가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안창호 같은 인사들이 어떻게 이 하잘 것 없는 분파정신과 증오심을 고취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9) 안창호는 경기도 경찰부에서 39일간 취조를 받은 후 1932년 7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 송치되었다.

<윤치호 일기>¹⁰⁾를 읽고 있다면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그의 뛰어난 글솜씨는 차치하고 그가 묘사한 조선의 상황이 지금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윤치호는 조선인이 자유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자유를 선물 받아도(선물 받는 것도 안 되지만)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것이 조선인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조선인’이라고 칭한 고영근뿐만이 아니다. 안창호를 비롯한 지식인, 관리와 왕가까지 전부들 하는 짓이 ‘전형적인 조선인’인 것이다. 윤치호는 조선에서 그런 조선인들을 보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에 좌절했다.

외국에 나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최고의 선물을 사 온 아버지 이승만은 그런 전형적인 조선인 자식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잊혀진 아버지가 되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은 외국에 나가 (빈둥거리고) 돈은 못 벌었어도 자기들처럼 행동하는 ‘전형적인 조선인’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천재 이승만의 외교력으로 이 땅은 자유를 선물로 얻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전형적인 조선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윤치호 일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이승만 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 근현대사 번역총서(2015)

* 각주에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경우 각 <일기>의 각주를 그대로 따랐다.

10) 1883년 1월 1일부터 1887년 11월 24일까지는 한문으로, 1887년 11월 25일부터 1889년 12월 7일까지는 국문으로, 1889년 12월 7일부터 1940년대까지는 영어로 일기를 썼다.

<토 론 문>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승만

여명
(서울시의원)

1980년은 주체사상, 2019년에는 페미니즘

대통령 잘못 만난 어른들이 해묵은 이념 갈등을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젠더 논쟁으로 이념 전쟁을 치열하게 겪고 있다. 남녀공학에서 남학생 여학생으로 갈라져 ‘한남충(한국남자蟲)’이니 ‘일베충(일간베스트 유저라는 뜻으로 보수 성향을 비하할 때 쓰인다)’이니 ‘메갈(여성주의 원리주의 사이트 메갈리안 유저들을 뜻하는 단어로 페미니스트를 비하할 때 쓰인다)’이니 하며 서로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갈등은 ‘남자는 무조건 잘못하는 존재, 여자에게 양보해야’라는 요지의 사이비 페미니즘 강의와 이로 인한 남학생들의 반발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가 페미니즘 광풍의 기미를 가볍게 넘긴 몇 년 사이 통일위원회 소속 전교조의 북한편향 교육보다도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학교 현장으로 시나브로 침입해 성교육을 위시한 젠더 교육으로 좌익 이념을 옥여넣는 것이 더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좌파 페미니즘은 결국 좌파이념으로 수렴하기에 똑같이 심각하다.

대학 현장은 어떨까. 필자의 모교는 페미니즘에 비교적 무관심하던 여대였다. 그런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네티페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오프라인으로 세력화해 나오면서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이 유행하더니 10M 마다 한 명 씩 성별을 구분 못하겠는 학생들이 보이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서 총학생회장이 6개월간 공석이기도 했던 숙대에서 재학생 6,000여명 중 5,700명이 페미니즘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상황까지 됐다.

본진은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맘’ 세대다. 이들은 귀족강성노조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대표 세력이다. 이들이 각종 ‘맘 카페’ 등에서 좌표를 찍고 공격하면 번창하던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한 줌 문재인 지지세력이 인터넷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대표하는 양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이들에 올라타 여성을 마치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자, (산업화 세대에 의한) 오랜 탄압의 대상이었던 양 우쭐쪼쪼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현 운동권 정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연한 여성주의 기류와는 다르게 한국의 여성운동은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바로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한 운동의 역사다. 대한민국은 건국과 동시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흑인 남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후로부터 50년 만에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다.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짠-하고 민권 의식과 자유, 평등 의식으로 국민들이 의식이 개조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 참정권 명시는 순전히 이승만 개인의 여성에 대한 존중과 남녀평등의식 의지의 발로였다. 이승만은 독립운동 생애에 걸쳐 여성교육과 계몽에 힘썼고 또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여성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이승만을 도와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에까지 참여한 여성들을 감히 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다.



그림 2 하와이, 한인여자 학원이 위치했던 건물

이승만과 건국의 어머니들

이승만은 1913년 하와이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 한다. 그가 워싱턴과의 연계를 통한 외교 다음으로 중점을 둔 쪽은 언론, 교육, 선교를 중심으로한 한인 계몽 운동이었다. 특히 교육에 힘썼는데, 이승만이 하와이 미국 교구 소속의 한인중앙학원을 인수하자 그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원해 찾아오는 여학생들이 많아졌다. 우남은 이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긴급 성금을 모금하여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한다. 그리고 이 기숙사를 중심으로하여 한인여자학원이라는 본격적인 여학교를 발족시켰다. 이 한인

여자학원은 2년 후 한인기독교학교로 확대 개편되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남녀 공학으로 재설립된다. (한인기독교교는 인천의 인하대학교 전신임)

그리고 이 한인기독교학원 출신으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건국에 기여하고 초대정부의 여성 정치인·여성 교육자로 활약한 여성들이 있었으니 대표적 인물로 대한민국 외자구매처장을 역임한 노디 김, 이화여대 첫 체육과 교수 김신실이 있다. 한인기독교학원 출신은 아니었으나 이승만과 해외 독립운동 시절 연을 맺고 그의 영향을 받아 참모를 자초한 여성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초대 상공부 장관 임영신(중앙대학교 설립자)과 해방정국 당시 유엔총회 한국 대표 모운숙(후일 제7대 국회의원), 이화여대 설립자 김활란 등이다.

8살에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민한 노디 김은 특히 한인기독교학원 출신의 수재로서 이승만의 추천으로 미국 본토 오벌린 대학에서 역사·정치학 학사를 취득한다. 노디 김은 대학 재학시절 이승만의 주도로 열린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표자대회에서 열변을 토해 한인 사회의 여성 지도자로 광광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승만이 워싱턴에 있을 동안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신 한인기독교학원 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하고 친이승만계의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회장이나 이사직을 맡아 우남의 독립운동을 밀착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이승만의 초청으로 한국땅으로 돌아와 외자구매처장을 맡아 일했으며 그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인하대학교 이사등 요직을 역임한다. 이 노디 김을 민족문제연구소가 <백년전쟁>에서 이승만과 대단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암시한다. 지금은 삭제된 이 영상에 의하면 이승만은 소아성애자와 다름없다. 여성이 주요 역할을 맡으면 그것은 힘 있는 권력자의 애인이 때문인가. 정말이지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다.

임영신 장관 역시 우남과 연이 깊은데, 그녀는 소녀 시절 전라도의 3.1운동을 이끌었던 열혈 여성으로서 일제에 의해 6개월간 복역 후 유학길에 나선다. 이후 일본 히로시마여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LA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녀와 이승만은 관동대지진 당시 임영신이 일본인의 조선인 학살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 이승만에게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지로서의 연이 시작된다. 한편 그녀의 전기에 따르면 이승만이 한 장로를 통해 임영신에게 구애하지만 20살에 가까운 나이 차이와 이혼 경력을 놓고 고심 끝내 고사한다. 대신 그녀는 이승만의 ‘承’ 자를 따 ‘승당’ 이라는 아호를 짓는다. 승당은 ‘이승만의 집’ 이라는 뜻이다. 임영신은 이승만의 추천으로 민주위원의 유엔 전권대사로 미국에서 외교 활약을 한 끝에 초대 상공부 장관으로 발탁된다.

모운숙은 6.25 동란 당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즉결처형당한 후 시체가 북한 탱크에 매달린 채 며칠을 끌려다녔다’ 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이승

만 계열로 분류 됐다. 문학인이 본업인 모운숙의 해방정국 당시 주된 업적으로는 메논 유엔학국위원장의 남한 단독 선거 반대 의사를 그녀의 지략으로 찬성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당시 한 표 한 표가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로는 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여성들은 공교롭게도 친일파로 몰리고 있는 여성들이기도 하다. 이화여대, 중앙대를 설립한 김활란, 임영신은 그녀들의 동상이 그녀의 후신들에 의해 끌려 내려졌으며 네이버 지식인이나 위키백과를 통해 접하는 그녀들은 세상 악랄한 친일파이자 민족 반역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그들은 여성이 소처럼 거래되던 시기에 태어나 평민일 경우 파인애플 농장이 유일한 희망이던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건너가 2등 시민으로 출발해야 했다. 운이 좋아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에도 ‘여자가 너무 배우면 팔자가 사납다’는 인식을 뚫고 유학길에 올라 ‘한인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갱신해가며 독립운동-해방정국-건국-6.25 동란을 거치는 ‘나라 만들기’ 과정에서 남성들 못지않은 자기역할들을 해낸 여성이다. 어떤 남성이 무슨 재간으로 메논을 설득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남성이 여성 엘리트를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어 키워낼 의지가 있었겠는가.

필자는 이 수상한 시절에 가끔씩 생각한다. 내가 일본 식민지 시기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났고 감사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진 청년 지식인 중 하나였다면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울분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 그리고 한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했었을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전술한 여성들은 오래된 과거지만 닳고 싶은 미래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조건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그 시대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건국에 일조한 건국의 어머니들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 관계 중심에 친여성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이러한 건국의 어머니들에 주목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한국 땅에서 여성이란 존재는 ‘현모양처’의 틀에 갇힌 울분의 역사, 억압의 역사만 있다고 주장되어지는 현실에서 진정한 여성 자존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인이 바라본 이승만

: 『호암자전』 속 우남을 중심으로

조우현
(미디어펜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1875~1965, 이하 이승만)에 대한 1세대 기업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동시에 이승만은 어떤 마음으로 기업인들을 바라봤을지, 또 기업·기업인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기록은 전무했다. 정주영 현대 창업주(1915~2001)의 경우 자서전에 당시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 협상을 했던 일화를 담았을 뿐, 이승만과 얽힌 이야기나 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SK의 전신인 선경그룹을 창업한 최종현(1929~1998) 역시 자신의 책을 2권이 나 냈지만, 이승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대한항공 창업주인 조중훈(1920~2002)은 ‘인하학원’ 인수 과정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이승만에 대해 언급하지만, 사실관계만 서술했을 뿐 그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은 남기지 않았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성금으로 모은 15만 달러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 1백만 달러와 기타 민간 기부금 30만 달러 등의 기금으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한국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 명칭도 인천과 하와이의 첫 음을 따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이 박사는 이 학교의 설립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학교 부지를 정하는데도 직접 몇몇 후보지를 답사하며 ‘월미 팔미섬을 감돌아 오대양이 통한 곳’이라는 안목으로 지금의 자리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초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4·19와 5·16 등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주인 없이 운영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조중훈, 내가 걸어온 길 p. 249 (나남출판, 1996)

별도의 자서전이 없는 LG 창업주 구인회(1907~1969)의 경우, 훗날 쓰여진 그에 대한 평전에서 이승만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이 역시 풍문에 의한 서술일 뿐 별도의 감상이나 평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상공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 플라스틱 빗을 하나 자랑스럽게 내놓으며 말했다. “각하, 이것은 외제 빗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든 빗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플라스틱 빗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특유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말했다. “매우 훌륭해요. 나한

테도 이 빛 하나 줄 수 있나요?” 이 일화는 사람들 사이에 잉크처럼 번졌다.

-이경윤, LG 구인회처럼 p.60 (FKI미디어, 2013)

반면 삼성 창업주 이병철(1910~1987)은 그의 자서전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해방 후의 혼란기에서 감회가 깊었던 추억이 있다면, 정부 수립 후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와의 만남이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이 박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항일 민족운동을 선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이다. 그 이박사가 ‘10월 폭동’이 진압되고 얼마 안 되어 대구를 방문했다.

-이병철, 호암자전 p.82 (나남, 1986)

이병철의 서술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이찬우는 청년시절 상경해 독립협회 회원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 기독교청년회에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병철은 이승만과의 첫 만남 때 아버지 성함을 들어 자기소개를 했다. 이 대통령은 몹시 반가워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꾸준히 진행됐다.

남한에서는 좌우의 정치세력이 대결, 혼란된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미국은 당초에 구상했던 좌우합작, 남북협상의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남한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이 박사가 당시의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언동을 삼가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었다.

그럴 무렵 회사 일로 상경한 나는, 이 박사가 대구에 왔을 때 상경하면 들르라고 당부한 일이 있었으므로, 당시 대구신탁은행 임원이었던 오위영씨와 함께 이화장으로 이 박사를 방문했다. 사전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는 흔쾌히 맞이해주었다. 거기서 나는 평생 잊기 어려운 일을 체험했다.

(중략)

“남쪽만이라도 선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분단된 채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몸을 베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지만, 공산당과의 협상에 구매받아 시기를 잃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그들 계약에 빠지고 말게 된다.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야. 기필코 남한에만이라도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남한에서 선거를 하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 틀림없을 이 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말의 무게와 큰 뜻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온 국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확고한 신념에 사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했다.

(중략)

사업보국이의 신념은 이날의 이 박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더 확고하게 굳었다. 이날 이 박사의 모습은 지금도 내 기억에 역력하게 남아있는데 마치 큰 불덩이를 숨으로 쓴 것 같이 느껴졌다. 만고풍상을 겪은 애국지사요 민족지도자였던 그분의 인상은 일생동안 잊을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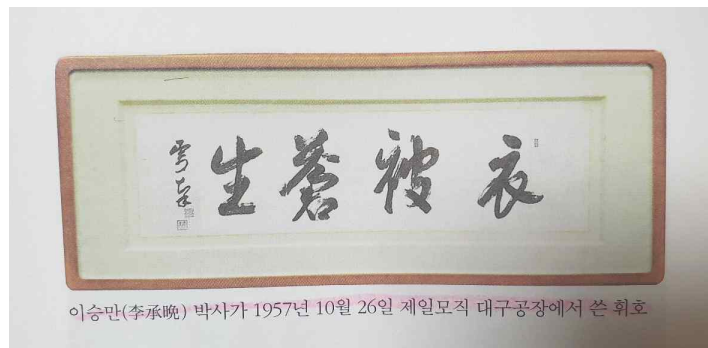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이 박사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약 1년 후인 1948년 8월의 일이었다. 민족의 독립에 이 박사는 한평생을 바쳤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신념, 60만 국군의 창설,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 능숙한 대미·대일 외교 등 탁월한 정치가로서의 역량과 공적은 일일이 매거할 필요가 없지만, 특히 6·25 동안에서 백척간두에 선 조국을 구한 이 박사의 공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길이 그 이름을 남기기도 남을 것이다.

그러한 이 박사가 4·19 혁명으로 실의의 망명길에 다시 오르게 되지만, 그 망명을 당시의 과도정부 수반 허정 씨가 도운 것을 알고 나는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다.

어쨌든, 소상한 기록이 없는 신라·고려시대는 접어 두더라도, 근세에 와서 세종대왕이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국민들은 한결 같이 숭앙하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이 박사도 민족의 역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병철, 호암자전 p.84~86 (나남, 1986)

위에 첨부한 글은 제7장 '이승만 박사의 추억'에 실린 이야기다. 이 같은 서술을 통해 건국 당시 이승만의 심정은 물론, 이병철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다른 기업인들은 자신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긴 반면, 이병철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했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알아본 이병철의 통찰력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역시 '큰 사람'은 '큰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다.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1957년 10월 26일 제일모직 대구공장에서 쓴 휘호

이후에도 이승만과 이병철의 인연은 계속된다. 1957년 10월 26일, 이승만은 대구에 위치한 제일모직 공장을 찾는다. 이 대통령의 국내공장 시찰은 이것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공장 시찰을 마친 이승만은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애국적 사업이야. 이처럼 자랑스러운 공장을 세워 주어서 감사해. 제일모직의 노력으로 온 국민이 좋은 국산 양복을 입게 되었구먼” 하면서 ‘衣被蒼生(의피창생)¹¹⁾’이라는 휘호를 남겨줬다¹²⁾. 기업인에 대한 이승만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또한 이병철의 기록을 통해 이승만의 경제 철학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병철의 서술에 의하면 1956년 무렵 이승만은 은행의 민영화를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여전히 ‘민영화’에 대한 편견이 상당한 시대상을 감안했을 때, 이승만의 시각은 능히 앞서나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이 박사로서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금융기관을 경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 서였다.

-이병철, 호암자전 p.148 (나남, 1986)

이후 1958년, 비료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이병철은 정부의 원조가 아닌 유럽으로부터 상업차관을 받기로 결심한다. 다만 차관을 받기 위해선 정부의 승낙이 필요했다. 당시 이승만은 경제학자인 송인상 부흥부장관에게 경제 정책을 위임했지만 △환율 △일본인들과의 관계 △외국 정부나 외국인과 무슨 약속을 하거나 원조자금의 사용내역을 정하는 것은 자신과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¹³⁾. 때문에 이병철은 이기봉 국회의장을 찾아 차관 계획을 이야기한 후 경무대를 방문해 이승만을 만난다. 당시 이승만은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겠다는 이병철의 뜻을 흔쾌히 승낙해줬다고 한다.

사업의 일로 이 대통령을 찾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비료공장건설에 관한 계획과 기본 구상을 솔직히 말했다. (중략) “유럽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자 훌륭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꼭 성취시키라고 격려해 주었다. 이 대통령은 달러를 쓰는 일이라면 극히 적은 액수이더라도 직접 결재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거액인 4천만~5천만 달러의 차관계획을 선뜻 승낙해 주었던 것이다. 사실은 많은 염려를 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대통령의 승낙을 얻게 되었다.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병철, 호암자전 p.158 (나남, 1986)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960년 2월 1일, 정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럽 여행길에 올랐던 이병철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

11) 옷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

12) 이병철, 호암자전 p.142 (나남, 1986)

13) 김용삼, 이승만과 기업가시대 p305 (북앤퍼플·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2013)

한국에서 대규모의 학생데모가 발발했다는 소식이 나를 놀라게 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파리에 가서 정일권 대사로부터 자세한 전말을 들었다. 유럽으로 떠날 때에 이미 국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사태가 이토록 급전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불과 몇 달 전에 비료공장을 직접 재가했던 이 대통령이 해야했다는 사실은 거짓말 같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하야로 유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중략) 바로 귀국할까 하다가 당초 예정대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의 차관 교섭이 남아있었다. (중략) 체미 중에 이 박사가 하와이에 은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러 비료공장의 차관교섭에 관하여 그 경과를 보고할까 생각하였다. 계획에 진척이 있는 것을 알면 기뻐해 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공연히 충격을 주어 건강을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가 있어 그냥 도쿄로 직행했다.

-이병철, 호암자전 p.165~166 (나남, 1986)

이후 이병철의 기록은 박정희(1917~1979) 시대로 넘어간다. 재미있는 점은 박정희 시대의 기록에는 정부를 향한 원망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1961년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되던 무렵의 기록을 첨부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조령모개로 일관성이 없고, 이 고비를 넘기는 데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과로도 겹쳐 1년간의 임기만 채우고, 나는 기어이 경제인협회장직을 사임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공직이었다. (중략) 4·19와 5·16의 두 혁명을 겪는 동안 나와 삼성이 입은 타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새삼 통감했다. 추징금 명목의 막대한 정부 환수 때문에 삼성그룹의 자금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병철, 호암자전 p.204~205 (나남,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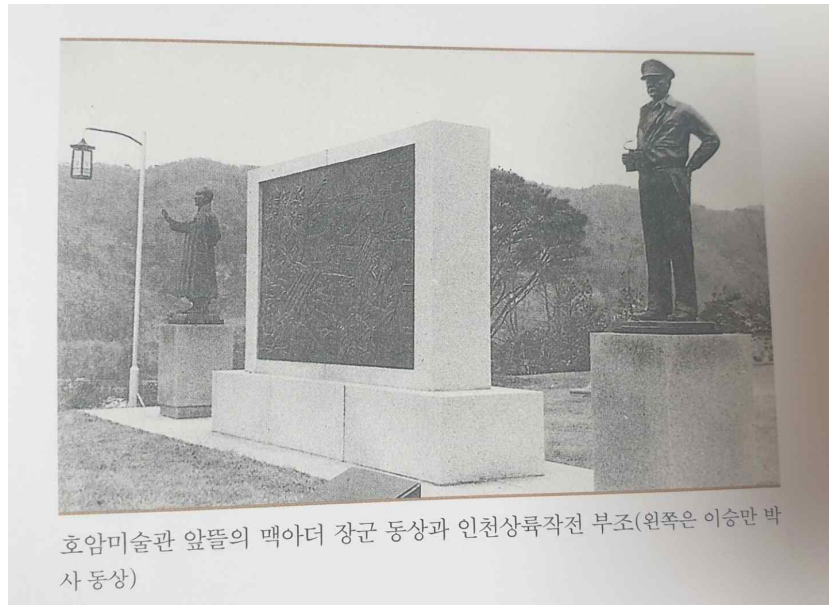
한국비료사건,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 불린 일화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앞서 이승만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권력구조의 중추에 있던 인물’이 박정희였음이 추후 이병철의 첫째 아들 이명희(1931~2015)의 자서전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사태는 심각했다. 한국제일의 재벌이 밀수를 했다고 신문들은 연일 대서특필 했다. (중략) 이 사건이 정치 문제화되고, 일부 매스컴이 이에 가담해 끈질긴 삼성 공격을 되풀이했던 이면에는 당시의 복잡한 정계 사정이 얽혀 있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굳이 밝힐 생각은 없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OTSA 문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된 채 강제수사를 받게 되었던 배경에는, 몇몇 정치인의 공작이 숨어있었다는 사실이다. (중략) 당시 권력구조의 중추에 있던 인물이 OTSA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비료 주식의 30% 증여’를 요구해왔던 사실도 있다. 아무튼 삼성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장되어 마치 국가적 범죄라

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정도를 넘는 일이었다.

-이병철, 호암자전 p.260 (나남, 1986)

한편 이병철이 존경한 인물은 맥아더 장군이었다고 한다. 1982년 4월 보스턴대학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그는 맥아더의 미망인과 만난 것을 '잊지 못할 일'로 회고했다. 그리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 호암미술관 앞뜰에 맥아더와 이승만 동사와 인천상륙작전 동판을 세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승만 박사와 함께 맥아더 장군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독립과 6·25의 전승이 과연 있었을까 하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중략) 귀국 후에 약속대로 거기에 적합한 장군의 동상과 인천 상륙작전의 부조 동판을 만들어 기증했다.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동상 제막식이 현지에서 거행된 바 있다. 똑같은 장군의 동상을 하나 더 만들어 호암미술관 앞뜰의 전망 좋은 곳에 세우는 한편, 장군과 인연이 깊었던 이승만 박사의 동상과 인천상륙작전 동판도 함께 세워 두 분을 길이 기념하고 있다.

-이병철, 호암자전 p.405 (나남, 1986)

이병철의 자서전을 통해 우남의 기록을 살펴봤다. 1945년 해방 이전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전 국민의 1%를 밑돌았다고 한다. 이는 이승만의 이상과 꿈을 이해하는 이들이 적었음을 반증하는 수치다. 남정욱 작가 역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7가지 선물: 시간을 달리는 남자』를 통해 “선지자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대접 못 받는 것처럼 거인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경의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우남이 받는 대접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남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이상을 이해하려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이병철은 이승만을 존경해 마지않았다. 앞서 언급했듯 ‘큰 사람’과 ‘큰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것이라는 해석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두 큰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 이병철이 일군 삼성은 ‘아직’은 존재하지만 늘 위태위태하다. 이승만과 이병철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다. 동시에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문재인과 이병철이 만든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이 서로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또 그들을 있게 한 이승만과 이병철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승만 서거 54주년 추모 세미나

건국혁명의 나라,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미안하다 청년들아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주 관 :  여명 서울시의원